

공동활용 장비 활성화 · 기업 지원

전북도 · 전북테크노파크, 공공 · 연구기관 등 보유 장비 중소기업 활용 사업 추진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도내 소재한 공공기관 · 연구기관 · 대학 등 39개 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2,009점(1천만 원 이상 장비 / 4,089억 원)을 공동 활용해 연구개발 활성화와 장비 구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해 과학기술 개발 촉진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구개발 장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공동활용장비 이용지원과 성능향

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총 6천만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장비 이용료는 70%에서 80%이내 지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업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장비 유지보수비는 기업당 비용의 50%이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은 장비정보제공시스템(<https://bjanghi.tnp.or.kr>) 누리집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등록된 공동 활용 장비의 정보검색, 활용문의, 상담가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장비 이용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또한, 모바일기기(태블릿, 스마트폰)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장비 보유 기관과 이용 협의 후 현장에서 즉시 신청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창석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새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때 장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공동활용 장비를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활용 장비 활성화와 기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제10호 진안군 동향면 사랑의 집' 입주식

자재구입비 후원금 모금 · 인건비 100% 재능기부로 신축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진성 이재동) 지난 23일 '제10호 진안군 동향면 사랑의 집' 신축에 따른 입주식을 가졌다.

사랑의집 신축 주인공은 지난 2019년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으며, 그간 면사무소 및 민간지원을 통해 기존 헛간 옆에 컨테이너를 달아내어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3개월간 자재구입비 후원금 모금과 인건비 100% 재능 기부활동으로 진안군 집짓기 자원봉사단과 함께 약 40일간 사랑의집 신축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송하진 도지사, 전춘성 군수, 김광수 의장, 이한기 도의원, 이재동 이사장(마이산탐사 주지 진성성님), 최주연 센터장을 비롯한 후원자, 집짓기 자원봉사단, 동향면 자원봉사단,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 입장을 축하했다.

또한, 진안군 사랑의 집이 10호까지 완공 할 수 있도록 지난 8년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준 진안 비석공장 대표 임정민(10가구/금10,000천원)과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10가구 씬크대세트)에게 전북도 도지사 표창장을, 진안군 집 짓기 자원봉사단원 원동환에게는 진안군 수 표창장을 전달해 그 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재동 이사장(마이산 탐사 주지 진성성님)은 "힘들고 안타까운 현상에는 항상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먼저 닿아 있었다"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에도 한발 한발 맞춰준 분에게 많이 감사하고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랑의집에 입주하게 되는 어르신에게도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지난 23일 '제10호 진안군 동향면 사랑의 집' 신축에 따른 입주식에 송하진 도지사, 전춘성 군수, 김광수 의장, 이한기 도의원, 이재동 이사장(마이산탐사 주지 진성성님), 최주연 센터장을 비롯한 후원자, 집짓기 자원봉사단, 동향면 자원봉사단,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 입장을 축하했다.

보내시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제10호 진안군 동향면 사랑의 집을 신축할 수 있게 도와준 곳은 다음과 같다.

(현금후원) △마이산탐사 △전북도의회 △장수군권오중 △성수면 산골어부 △부귀면모 래재너머 △삼성화재 강민주 △우리카리니 △원불교진안교당봉공회 △진안동 부새마을금고 △진안YMCA △진남 식자재유통 △진안읍 용마루 △진안읍 우박집 △진안아름다운과부삼 △남부마이산식당가뻏꽃마을 △진안읍88 광고사 △진안읍 은혜네 반찬가게 △진안군마이산청소년야영장 △진안신문 △부귀면 자원봉사단장 백승례 △전라북도청 서남용 △진안장로교회&가수서운 △BBS 방송국기자 정종신 △진안비석 △대한적십자진안읍지회 ADIY 어르신 봉사단장김순자 △부부가족봉사

단장성진명 △재전청년 진안향우회 △무주군 이회기 △전주대현 카서비스 △주천면 자원봉사단장김경남 △전주교차자원봉사단장 신영자 △재전향우회회장이상화 △주거복지대상수상인센터비 △재전향우회장 윤성경 △마이산 탐사불자JDS대산 스틸 대표 이정우 △마이산탐사불자정용기 △마이산탐사불자김지희 △재전진안향우회 김운배 △푸라닭 전북진안점 △마이산 탐사불자 이영순 △마이산탐사불자 이현명 △무안나지 △마이산 탐사불자 이경미 △재향우회 동향회 장안환진 △마이산탐사불자 하운철 △진안군 산림조합 △금당사 (불품후원) △진안쌍봉사 △제일전업사 △(주)가운우드 (재능기부) △이진건축사사무소 △제일 전업사 △진안군집짓기 자원봉사단

/유호상 기자 ·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관련 협업 방안 등 논의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가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청 · 경찰청 ·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현장 경찰관이 참여한 '2022년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운영에 따른 기관 간 협력방안과 원광대학교 병원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실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적시설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북도 아동학대 신고가 최근 2019년 247건, 2020년 265건, 2021년 482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도는 전북지역 아동쉼터를 기존 4개소에서 올해 5개소가 추가된 9개소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신규 설치 등 추가로 운영되는 아동쉼터에서 학대아동의 보호와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 행정기관,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학대행위자의 쉼터 함의 방문 · 접근을 차단하거나, 피해아동의 자해 · 가출 등 문제발생 시 관계기관이 긴밀히 신속 대응하고, 피해아동이 전학 시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지난 8월 개소한 원광대학교 병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청과 도경찰청 그리고 전북도정신건강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 ·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등 반 주취자의 경우에 응급입원이 필요함에도, 병실확보가 어려워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임시 보호조치 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장경찰관의 애로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원광대학교병원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선정돼 4월중 개소, 관할병동을 주 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자는 데에

해당 시설이 운영되면, 주취자 응급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도내 정신질환 치료 병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환자이송과 적기치료 및 보호조치도 논의했다.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도 전법경찰청, 전북 교육청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에서 다룰 도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실효성 높은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신속 교부

전북도는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라 비대면 종합 조사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전북도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사 보조기구, 보행차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기기센터에서 적합성 상담 등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종합 조사로 대체한다.

이에 대면조사로 인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사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먼저 '시각 · 청각 · 자폐성 ·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종합 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대상자를 확대

할 계획이다.

보조기기 교부 한도는 1인 1제품이 원칙이다. 동일한 품목을 지원 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현숙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활밀착형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소식 전할 '새만금 탐험대' 찾아요"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새만금 사업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제7기 정책기자단 '2022 새만금 탐험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청년층(만 18세 ~ 34세)이다.

2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새만금 개발청 블로그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모집 분야는 글쓰기와 영상 부문으

로 나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활동이 가능하다.

선출된 기자단은 새만금의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을 비롯해 새만금의 역사, 문화, 관광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 등을 현장감 있는 글과 영상으로 담은 콘텐츠

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탐험대는 오는 5월부터 11월 까지(7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제작한 콘텐츠는 새만금 누리소통망(SNS) 채널들을 통해 확산된다.

탐험대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성과에 따라 우수기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젊은 시각에서 참신한 콘텐츠로 만들어 MZ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과 열정적으로 소통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